

부위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라) “수리”라 함은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교정, 손상부의 재용접, 재도장, 재도금, 부품의 교환 등 행위를 말한다. 단,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한 제조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마) “모집단”이라 함은 동일한 종류와 형식으로 부재별 관리기준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거친 가설 기자재”로 분류된 재사용 가설기자재 전체를 말한다.

(바) “현저함”이라 함은 판정기준상 부식, 변형 등으로 인한 두께의 감소, 정비 불가능, 정비가 되어도 사용상 무리가 따르는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사) “NDT(Nondesructive Testing, 비파괴검사)는 검사 대상물을 파괴 또는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에서 품질 또는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는 비파괴검사 중 액체침투탐상검사(Liquid Penetrant Test; PT)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폐기기준

재사용 하고자 하는 가설기자재는 변형·손상·부식 등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가설기자재와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는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 폐기기준은 [부록 1]과 같다.

(1) 재사용 : 수리 또는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성능기준이 확보된 경우

(2) 폐기 :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변형·손상·부식 등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